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 경로모형 분석*

박 현 숙¹⁾

1)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Park, Hyun Sook¹⁾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fitness of a path model on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self-esteem, aggressi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for adolescents.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1,177 adolescents.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and AMOS programs. **Results:** Stress, self-esteem, aggression, and depression showed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while stress, self-esteem, and aggression showed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Stress, self-esteem, agg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howed a direct effect on violent behavior for adolescents, while stress, self-esteem, aggression, and depression showed an indirect effect on violent behavior for adolescents. The modified path model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was proven correct.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can be decreased by reducing stress, aggression, and depression and increasing self-esteem.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s reducing stress, aggression, and depression and increasing self-esteem in order to decrease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and violence.

Key words : Adolescent, Suicide, Violence

서론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학생들의 일시적 이탈행동으로만 여겨졌던 학교폭력은 오늘날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주요어 : 청소년, 자살, 폭력

* 이 논문은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6-068-E00096).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6-068-E00096).

투고일: 2007년 5월 25일 심사완료일: 2007년 7월 16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Hyun Sook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 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21-4106 E-mail: parkhs@cu.ac.kr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으며(Yu, 2005),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Tompson, Mazza, Herting, Randell, & Eggeet, 2005)와 국내 선행 연구(Park, Koo, & Schepp, 2005; Park, Schepp, Jang, & Koo, 2006)에서 청소년의 자살사고가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자살사고는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 지표가 될 수 있고,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위험요인은 우울이며, 우울 완화를 통한 자살 예방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위험요인은 공격성(Joo, 2002)이며, 폭력 예방을 위해 공격성 완화를 위한 개입전략(Yu, 2005)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살원인으로 우울 이외에도 자아정체감의 상실,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므로(Hong, 2004; Oh, 2006), 우울 완화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고, 청소년의 폭력원인으로 공격성 이외에도 가정생활 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Joo, 2002; Lee, 2002; Yun, 2003) 등을 들 수 있으므로 공격성 완화가 청소년 폭력 행동 감소를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에 관한 개입은 각각 분리하여 시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개입이나 증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Lubell & Vetter, 2005).

Plutchik(1995)은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은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frustration)로부터 유발되며,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협과 도전이 공격적 충동으로 이어져,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과 지역사회 요인에 따라 청소년 자신으로 향하는 자살행위와 타인으로 향하는 폭력행위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하여 최근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에 관한 연구(Conner, Duberstein, Conwell, & Caine, 2003)에서는 청소년의 자살·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학교중심 개입전략이 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병리적 증상이나 부적응 상태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대두되고 있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발달의 현상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Simnton & Baumeister, 2005), 긍정심리학에서의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위험요소의 영향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소를 가진 경우는 역경으로부터 되돌아와서 더 강해지고 자원이 풍부해

지며, 위기와 도전에 반응하여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데 있다. 최근 자살과 폭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보호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청소년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위험요소의 영향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소를 가진 경우는 적응 유연한(resilient) 청소년이 된다는 연구결과(Park et. al., 2006)들이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사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가족의사소통(Hong, 2004; Lee, H. W., 2006; Oh, 2006) 등을 들 수 있으며, 청소년 폭력행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Joo, 2002; Lee, 2002; Lee, S. J., 2006; Yun, 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개인내적 보호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자살·폭력과 관련된 주된 예측요인이므로(Park et al., 2006; Lee, 2002), 대표적인 공통된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학교중심 개입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자살사고와 폭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이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부적응 행동인 자살사고와 폭력행동에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사고와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고, 나아가서 청소년을 위한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을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정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경로모형

본 연구의 개념 틀은 Plutchik(1995)의 모형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최근 대두

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되고, 좌절은 공격반응을 가중시키며(Conner et al., 2003), 이러한 공격성이 내재화되어 우울하거나 혹은 자살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외현화되어 폭력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Plutchik, 1995; Lubell & Vetter, 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보호요인은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Park et al., 2006; Lee,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기틀과 선행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외생변수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 자살사고 및 폭력행동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써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지역, K지역, P지역 및 G지역에 소재한 8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생 1,177명이다.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599명(50.9%), 여학생이 578명(49.1%)이며, 학교별 분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592명(50.3%),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585명(49.7%)이고, 학년별 분포에서는 1학년생이 590명(50.1%), 2학년생이 587(49.9%)이다.

연구 도구

●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Bae(2002)가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 2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eon(197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 공격성

공격성은 Park(1998)이 개발한 공격성 척도 4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우울

우울은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Chon과 Lee(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 척도 2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n과 Lee(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자살사고

자살사고는 Reynolds(1987)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Shin(1992)이 번안한 척도 3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 폭력행동

폭력행동은 Ryu(1982)가 고등학생의 학교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Kim(2002)이 수정·보완한 폭력행동 척도 2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자료 수집

대상자 수는 총 1,200명을 최종 목표 인원으로서 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학교별, 성별, 학년별 분포를 고려한 대상자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 수준(α) .05, effect size .30, 검정력(1- β) .70으로 설정하였을 때 137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학교별 목표 인원을 약 150명으로

하고 D지역, K지역, P지역 및 G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2곳과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2곳, 실업계 남자 고등학교 2곳과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 2곳에서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급 단위로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익명파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 자살사고 및 폭력행동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1,177부(98%)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거쳐 SPSS-WIN 12.0과 Amos 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절대부합지수로 χ^2 ,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및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를 구하였으며, 증분부합지수로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와 비표준적합지수(Non normed fit index, NNFI)를 구하였다. 모형의 구조 경로에 대

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경로모형 검증을 위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변인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 자살사고 및 폭력행동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적 경로모형의 검증

●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χ^2 값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χ^2 값은 13.744 ($p = .001$)로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대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χ^2 값은 표본 수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적합지수를 검증한 결과, RMSEA는 .085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GFI는 .996, AGFI는 .919, NFI는 .992, NNFI는 .992로 모형의 조건을 만족하였다<Table 2>.

●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표준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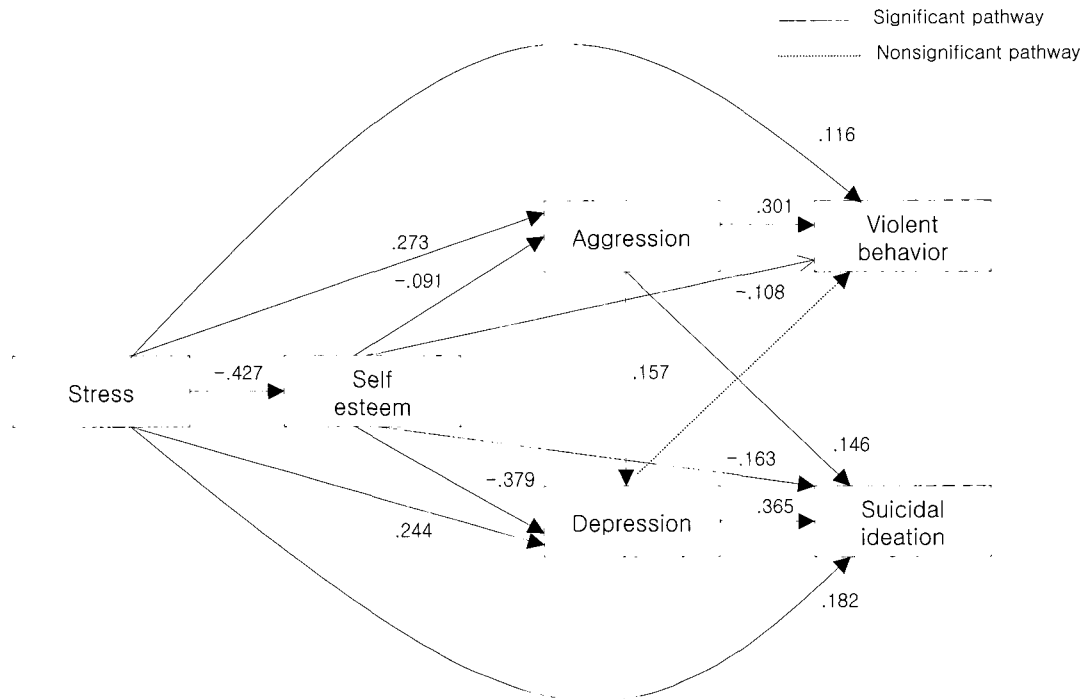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tress, self-esteem, aggressi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of subjects (N=1,177)

	Stress	Self-esteem	Aggressi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Violent behavior	M	SD
	r(p)	r(p)	r(p)	r(p)	r(p)	r(p)		
Stress	1.00						49.72	11.34
Self-esteem	.427(.000)	1.00					26.81	4.90
Aggression	.312(.000)	-.208(.000)	1.00				58.08	11.96
Depression	.455(.000)	-.516(.000)	.312(.000)	1.00			39.74	9.98
Suicidal ideation	.463(.000)	-.459(.000)	.350(.000)	.577(.000)	1.00		51.97	20.03
Violent behavior	.178(.000)	-.220(.000)	.325(.000)	.122(.000)	.205(.000)	1.00	16.38	5.41

<Table 2> Goodness for fit tests

(N=1,177)

Goodness	χ^2	p	RMSEA	GFI	AGFI	NFI	NNFI
Hypothetical path model	13.744	.002	.085	.996	.919	.992	.992
Modified path model	.230	.631	.001	1.000	.997	1.000	1.000



<Figure 1> Hypothetical path model

추정치의 값을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도형(path diagram)을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가설적 모형의 경로 추정치에서 자살사고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182, p < .001$), 자아존중감($\beta = -.163, p < .001$), 공격성($\beta = .146, p < .001$) 및 우울($\beta = .365, p < .001$)이었으며, 폭력행동에 유의하게 직접적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116, p < .001$), 자아존중감($\beta = -.108, p < .001$) 및 공격성($\beta = .301, p < .001$)이었다.

공격성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273, p < .001$)와 자아존중감($\beta = -.091, p < .01$)이었고, 우울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244, p < .001$), 자아존중감($\beta = -.379, p < .001$) 및 공격성($\beta = .157, p < .001$)이었으며,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427, p < .001$)이었다.

가설적 모형의 수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을 AMOS에서 제시하는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

을 실시하였다. 수정과정에서는 가설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우울 → 폭력행동의 경로를 제거하고, 자살사고 → 폭력행동의 경로를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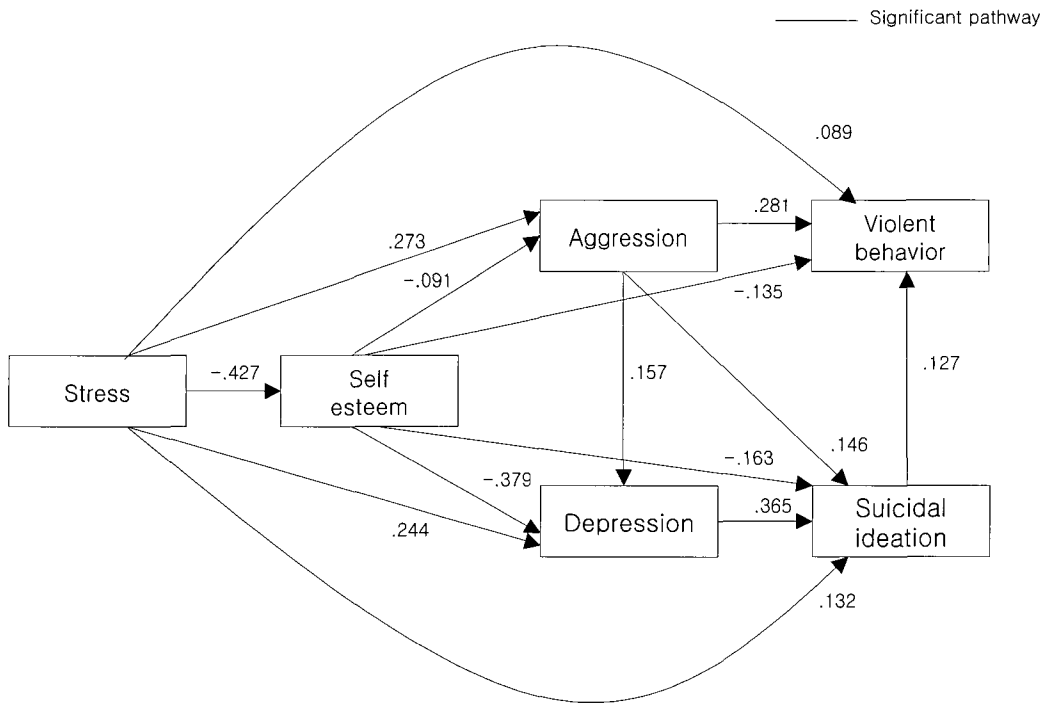
●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적 모형과 동일하게 χ^2 값, RMSEA, GFI, AGFI, NFI 및 NNFI의 적합도 지수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χ^2 값은 .230($p = .631$)으로 독립모형으로써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었다. RMSEA는 .001로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을 보였고, GFI는 1.000, AGFI는 .997, NFI는 1.000, NNFI는 1.000으로 최적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을 보였다.

●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표준화 경로 추정치의 값을 중심으로 수정 모형에 대한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수정 모형의 경로 추정치에서 자살사고에 유의하게 직접적



<Figure 2> Modified path model

인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132, p < .001$), 자아존중감 ($\beta = -.163, p < .001$), 공격성($\beta = .146, p < .001$) 및 우울($\beta = .365, p < .001$)이었으며, 폭력행동에 유의하게 직접적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089, p < .01$), 자아존중감($\beta = -.135, p < .001$), 공격성($\beta = .281, p < .001$) 및 자살사고($\beta = .127, p < .001$)이었다.

공격성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273, p < .001$)와 자아존중감($\beta = -.091, p < .01$)이었고, 우울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244, p < .001$), 자아존중감($\beta = -.379, p < .001$) 및 공격성($\beta = .157, p < .001$)이었으며,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스트레스($\beta = -.427, p < .001$)이었다.

<Table 3>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modified path model (N=1,177)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 ²
Self-esteem				
Stress	-.427	.000	-.427	.182
Aggression				
Stress	.273	.039	.312	.104
Self-esteem	-.091	.000	-.091	
Depression				
Stress	.244	.211	.455	.355
Self-esteem	-.379	-.014	-.393	
Aggression	.157	.000	.157	
Suicidal ideation				
Stress	.182	.281	.463	.421
Self-esteem	-.163	-.157	-.319	
Aggression	.146	.057	.203	
Depression	.365	.000	.365	
Violent behavior				
Stress	.089	.089	.178	.150
Self-esteem	-.135	-.066	-.201	
Aggression	.281	.026	.307	
Depression	.000	.046	.046	
Suicidal ideation	.127	.000	.127	

● 수정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각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자살사고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스트레스였고, 다음으로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순이었다. 이들 변수는 자살사고를 42.1% 설명 가능하였다. 이 중 스트레스는 직접효과 보다 간접효과가 더 높았다.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자살사고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폭력행동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공격성이었고,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자살사고 및 우울의 순이었다. 이들 변수는 폭력행동을 15% 설명 가능하였다. 이 중 우울은 폭력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없었지만 Sobel test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 우울이 자살사고를 매개하여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스트레스이었다.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사고와 폭력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수정모형에서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이었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사고가 높았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Hong과 Jeon(2005)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자살사고에 대한 스트레스의 총 효과가 .463 수준으로 다른 요인보다 높고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높은 것은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Hong과 Jeon(2005)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접경로보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을 통한 간접경로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공격성과 우울 감소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Park et al., 2005) 결과와 일관되며,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해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보호요인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Lubell과 Vetter(2005)의 연구결과와 공격성이 내재화되어 자살사고를 유발한다는 Plutchik(1995)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한 Park 등(2006)의 연구와 Kim(2006)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과 같은 변인들은 청소년 자살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확인되었고, 수정 경로모형의 예측변인들이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정도가 42.1%로 나타나 예측력이 높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해서 스트레스, 공격성 및 우울 감소를 위한 개입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종 수정모형에서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자살사고이었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낮았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높았고, 자살사고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높은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이 폭력행동이 빈번하다는 Conner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낮은 것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에서 폭력행동이 빈번하다고 보고한 Lee(200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공격성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높은 것은 공격성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Oh, 2005) 결과와 공격성이 외현화되어 폭력행동을 유발한다는 Plutchik(1995)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폭력행동에 대한 공격성의 총 효과가 .307 수준으로 다른 요인보다 높았고 간접효과에 비해 직접효과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공격성(Joo, 2002)이며, 이러한 공격성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사고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사고와 폭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한 Mezzich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므로 공격성이 외현화되어 폭력행동을 하는 청소년

년들 중에는 자살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이었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Joo, 2002; Lee, 2002; Lee, S. J., 2006; Yun, 2003) 결과와 일관된다.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통해 폭력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폭력행동 감소를 위해서 공격성 완화를 위한 개입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이었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Hong & Jeon, 2005; Park et al, 2006) 결과와 일관된다.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은 청소년의 우울을 통해 자살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여,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생 1,177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살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이었고, 간접적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이었다.
- 폭력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자살사고이었고, 폭력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이었다.
- 수정된 경로모형은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들을 기초로 한 통합적 자살·

폭력 예방 접근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회의 측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청소년기 초반부터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어떠한 과정을 거쳐 더욱 심화 혹은 개선되는지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사고·폭력행동과 관련된 제한된 보호요인으로 모형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폭력과 관련된 공통된 보호요인 탐색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폭력과 관련된 주요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확인되었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References

- Bae, A. (2002). *Mental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in Chonnam*.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Construction of a Community Based Mental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Adolescents, Kwangju, Chonnam.
- Conner, K., Duberstein, P., Conwell, Y., & Caine, E. (2003). Reactive aggression and suicide theory and evidence. *Aggress Violent Behav*, 8, 413-432.
- Chon, K. K., & L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 Clin Psychol*, 11(1), 65-76.
- Hong, J. A.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 Hong, Y. S., & Jeon, S. Y. (2005).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 Health Social Work*, 19, 125-149.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9-129.
- Joo, B. D. (200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juvenile delinquency in middle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 Kim, M. A. (2006).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M. J. (2002). *Construction of a predictive model of adolescent's school viol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Kwangju.
- Lee, H. W. (2006). *Research for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teenager's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J. (2006).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 on adolescents experienced family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S. O. (2002).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to the degree of school violence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ubell, K. M., & Vetter, J. B. (2005). Suicide and youth violence prevention: The promise of an integrated approach. *Aggress Violent Behav*, 11, 167-175.
- Mezzich, A. C., Giancola, P. R., Tarter, R. E., Lu, S., Parks, S. M., & Barrett, C. M. (1997). Violence, suicidality, and alcohol/drug use involvement in adolescent females with a psychoactive substance use disorder and controls. *Alcohol: Clin Exp Res*, 21(7), 1300-1307.
- Oh, H. A. (2006).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the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Oh, S. H. (2005). *The effect of anger control training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Park, H. S., Koo, H. Y., & Schepp, K. G. (2005).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by gender. *J Korean Acad Nurs*, 35(8), 1433-1442.
- Park, H. S., Schepp, K. G., Jang, E. H., & Koo, H. Y. (2006).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in South Korea. *J Sch Health*, 76(5), 181-188.
- Park, J. M. (1998). *Relationship among narcissistic propensity, dominance, and hostility of the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lutchik, M. (1995). Outward and inward directed aggressiveness: The interaction between violence and suicidality. *Pharmacopsychiatry*, 28(Suppl. 2), 47-57.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new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3), 385-401.
- Reynolds, W. M. (1987).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u, S. C. (1982). *The study on attitude of school for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Seligman, M., Steen, T.,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 Psychol*, July-August, 410-421.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imnton, D. K., & Baumeister, R. F. (2005). Positive psychology at the summit. *Rev Psychol*, 9(2), 99-103.
- Tompson, E. A., Mazza, J. J., Herting, J. R., Randell, B. P., & Eggert, L. L. (2005). The mediating roles of anxiety, depression, and hopelessness on adolescents' suicidal behavior. *Suicide Life Threat Behav*, 35(1), 14-34.
- Yu, P. S. (2005). Analysis on effectiveness of the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middle schools. *Adolesc Res*, 12(2), 51-76.
- Yun, J. Y. (2003).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protective factors on the youth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